

오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천대 길병원 국민검진센터

글_이영경 사진_최충식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이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관심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로 변했다.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오늘날, 가천대 길병원 국민검진센터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법적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이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건강 이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건강상의 변화가 있는 것을 전문적인 진찰과 간편한 검사를 이용하여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을 느끼면 검진이 아니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대인에게 흔한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병은 건강상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진은 현재 건강상에 이상이 없지만 앞으로 암이나 뇌심혈관계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발견하여 교정해줌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법에 의한 검진만을 담당하는 직업환경의학과와 이상적 모델 구현

검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현대인은 검진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대상자에 따라 법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검진이 실시되는 한편, 개인의 욕구와 의료기관의 경영전략에 따라 고가의 검사도구를 이용하는 종합건강진단이 넘쳐나고 있다.

검진은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검진이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의학의 중요한 도구가 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이 그것이다. 현대인의 질병은 노화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의학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검진은 모든 연령대,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 환경의학의 시작인 것이다. 건강보험에 의한 건강검진, 암검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생검진, 모자보건법에 의한 영유아검진 등이 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인 검진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의료과목이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법에 의한 검진을 직업환경의학과뿐만 아니라 ‘건강관리과’란 명칭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국민검진센터는 직업환경의학과가 중심이 되어 법에 의한 모든 건



강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의료 기관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1990년대 초반 인천시 남동구에 신설된 남동공단에 남동길병원을 개설하고 특수건강진단을 비롯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주력했다. 2015년에는 인천시 구월동 길병원 본관 옆의 독립건물을 국민검진센터로 개조해 근로자 건강진단과 일반 건강진단을 통합해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종합건강진단은 별도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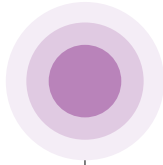
가천대 길병원은 2005년부터 전공의 수련 과정을 실시해 8명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배출했고 연차별로 1명씩 4명의 전공의가 수련을 받고 있다. 강성규 교수는 2016년 주임교수로 부임했으며, 현재 전문의 3인 수련기관이 됐다. 2017년에는 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위생학 박사를 교수로 영입하여 직업환경의학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갖추었다.

길병원 국민검진센터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반건강진단기관, 지정측정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술사, 산업위생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등 총 7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과 암검진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치과의를 확보하고 있다.

최적의 예방과 진료 과정 구축,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

“환경은 ‘직업환경’과 ‘일반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업환경에는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각종의 화학물질, 분진 등이 있어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유해물질이 없더라도 직장의 조직, 문화, 업무의 형태에 따라 신체에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생활환경에도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기도 하고, 생활 속의 환경변화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인간은 생활환경 속에서 유해물질이나 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유해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그로 인한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법에 의한 건강검진입니다.”





유해물질이 없더라도 업무의 형태에 따라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유해요인을 최소화하고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합니다.



길병원 단지 내에 독립적으로 세워진 국민검진센터는 층별로 구분해 검진을 진행한다. 1층에서 접수를 하면 근로자검진은 2층, 일반검진은 3층, 암검진은 5층, 여성검진은 5층에서 실시하고 있다. 강성규 교수는 “관련 전문의를 확보함으로써 한번 방문하면 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36개 진료과 및 전문클리닉과 500여 명의 전문의가 근무하는 본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전했다. “같은 등록번호로 검진과 진료를 할 수 있어 검진 과정에서는 피검자의 과거력을 참조할 수 있고, 진료 과정에서는 검진 결과를 참고할 수 있어 최적의 예방과 진료 과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통해 지난해에 한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전원에게서 카드뮴중독 유소견자를 발견했다. 심장내과와 협진을 통해

신장조직검사로 확진을 했고, 노동부에 보고해 전국의 숨어 있는 카드뮴중독을 찾아내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서 발주한 급성중독성질환 지역감시체계 모델연구를 수행해 화학물질에 의한 뇌병증 등 수십 건의 새로운 형태의 직업병을 발견했다. ‘환경’과 ‘사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사회관계를 담당하는 직업환경의학은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생활과 함께 할 것이다. 환경에 의한 건강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건강검진도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가천대 길병원 국민검진센터는 의료기관이지만 치료보다는 예방에 목표를 두고 그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